東亞日報
朝刊 夕刊
本紙朝夕合十面
發行所 東亞日報社
電話代表番號 光化門 一九〇〇

中國、北鐵에對한 財政上宗主權强調

北鐵讓渡交涉再開에臨하야 中外에聲明準備中

【上海二十六日發聯合】北鐵交涉은 三國間에 進捗되어 비로소 讓渡交涉成立의 前夜에 臨하야 中國側은 北鐵의 財政上의 權利及 그 宗主權을 强調하고 讓渡交涉의 非合法的이고 無法的임을 中外에 聲明하려고 目下準備中이다

北鐵讓渡成立과 時事申報社說

【上海二十六日發聯合】北鐵讓渡交涉이 最後의 讓步로 거의 成立에 갓가웟다는 報道는 今日 中國側을 刺戟하야 ...

北鐵交涉의大綱은 廣田外相에一任

派生的細目은蘇滿間에

兩三日中蘇大使와斡旋交涉

【電通東京電話】北鐵交涉滿洲國代表 大橋忠一氏는 廿六日午前 東鄕歐亞局長과 會見後 十一時半부터 廣田外相과 會見, 그外 廣田外相이 유레니에프大使와의 折衝經過 ...

大橋外交部次長 外務首腦部와會見

【東京電話聯合】廣田外相의 仲介로 再開하게된 北鐵讓渡交涉으로 來東한 大橋次長은 二十六日 午前九時半 外務省으로 東鄕歐亞局長을 訪問하고 北鐵讓渡에 關하야 ...

社說

北鐵交涉의諒解成立

一

昨年 六月二十六日 第一回 正式會議以來 北鐵讓渡交涉은 ...

◇巴里의大防空演習◇

農糧差押禁止法案

緊急施行을實施하라

一

現行 民事訴訟法은 ...

蘇聯偵察二機 滿洲里에不時着

搭乘者는卽時逮捕取調中

【滿洲里二十六日發】二十六日午前 一時半 蘇聯軍用偵察機二機가 夜暗을타서 飛來하야 滿洲里의 ...

複葉偵察機에 大尉二名搭乘

◇滿洲側嚴重抗議

于學忠首席에게 嚴◇重◇抗◇議

戰區問題에關하야

【天津二十五日發聯合】日本商人 ...

國際無線電話 開通式擧行

日本과比島間에

【電通東京電話】日本과 比律賓間 國際無線電話開通式은 二十六日午前十一時半부터 東京中央電話局長室에서 開始되엇다고 한다

比島閣議에서 關稅引上承認

五割乃至十五割

【마닐라二十六日發聯合】二十六日의 比律賓閣議에서는 ...

"布哇는米國의 本土가아니다"

自治制를剝奪하려는計劃?

米國司法省의判定

【電通하와이二十五日發】米國司法省은 하와이가 米國의 本土가 아니라고 判定을 ...

全朝鮮 刑務所長會議

全朝鮮刑務所長會議는 二十六日午前九時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

總督訓示要旨

今後對策審議 特別委員에附託

米穀調査第二回總會

青木會長以下十九名을決定

【電通東京電話】米穀調査會의 第二回總會는 二十六日午後二時五分 首相官邸에 開會 ...

米價漸次大暴騰

米統法의最高價格을 數日中에突破할듯

【電通東京電話】凶作來의 앞잡 ...

朝鮮銀行券 比前年膨脹

朝鮮銀行券發行高는 ...

埃獨立保障 結局有耶無耶

政友臨時議會召集의 聲明書를決定

陸軍側도召集을力說

【電通東京電話】政友會는 二十六日正午 ...

民政黨에서도 召集要求決定

【電通東京電話】臨時議會召集에 關하야 民政黨에서는 二十六日午後一時 本部로 ...

植田軍司令官 大將으로昇進

來月末或은十一月에

獨逸國內市場에서 外國貨物驅逐

◇價格統制令公布

【伯林二十五日發聯合】最近獨逸에서는 ...

殖産銀行異動

夕刊後市況

早稻田大學講義 開講間近に迫る 今こそ入學の絶好機

中學講義

「最善の內容!」「最低の學費!」
大學을背景으로、傳統을자랑하는通信教育의最高峯!
全卷이모도珠玉의文字!!
여러분一生의幸不幸은여기서갈리는것입니다.

高等女學講義

商業講義

內容見本進呈
文學講義 建築講義 政治經濟講義 電氣工學講義 法律講義 電氣工學講義
東京 早稻田 早稻田大學出版部

ClibPDF - www.fastio.com

本社東京大阪支局活動

救護班十隊組織

各教會各組合이協力應援

災地第一線에서活躍

【大阪에서東京支局長申浩均電話】 미증유의 대풍재로 대판부지의 참해는 참혹을 극하엿다함은 누보하엿거니와 재류조선인의 소식과 그들의 참담한 재후형편과 구호여하가 대단히 알고싶엇는데 본사대판지국에서는 다음파갈은 구호반十대를 조직하야 재류주민유지와 각단체의 협력으로 재민구호에 지력을 경주하고잇다.

한편에는 책임자가잇고 그책임자아래로 五명내지十명이 협력하야 재지로 출동조사하며 구호에전력하고잇다.

▲風水災救護調查隊 ▲大正區鶴町—朴文鎬 ▲大正區南恩加島町—木綿川朝鮮教會申太明、金鳳淑 ▲大正區小林町—金鋼炫 ▲西成區津守町—金奇喆 ▲此花區四貫島町—金思鎰 ▲此花區櫻島—安永善 ▲港區八幡屋浮島—任在一 ▲港區辰己町—金澤銖 ▲西淀川區大和田町—鄭榮章 ▲坂西泉州町—泉州勞組金達桓

櫻島工場地帶

三百災民에救護

鶴町에 災後 첫假舍

【大阪에서東京支局長申浩均電話】 대정구학정(大正區鶴町)은 해면가까운곳으로 조선인 거주자인데 전부침수가되어 긴급파견되엇는데 상애회(相愛會)에서 위원회 노력으로 재민을 구호하엿고 二十六일 조선인의손으로 재후첫가사(假舍)를 지어 재후 첫날을 사수하엿다.

그리고 앵도(櫻島)는 공장지대이데 二十五일에야 들어빠저나가게되이 본사구호반이 처음으로 이재지에 출동하야 구호에착수하엿는데 재류재민들은 한식에 三四가호씩 모여 서로이러운가운데시 잇고없는것을 나누어쓰며 지나는 그동족애의 정경은 보는사람으로하여금 눈물을 머금게하엿다.

醫師帶同하고

災民歷訪白米分配

참변에 목숨만 남은 재류민

感謝의눈물을不禁

【大阪에서東京支局長申浩均電話】 二十五일 이상조직된 각구호대는 의사를대동하고 현장에 출동하야 피사지 노력하야 부상자와 노숙으로 방황하든 동포들을 구호하엿고 二十六일에는 노숙하는 재지에 설상가상으로 비가나려저 처참한 동포들은 주림과 추위에서 헤매이고 잇엇는데 때마침 구호반이 출동하여 이파경을보고 눈물겨운 백미와 된장、감장을 분배하고 피신할곳을 주어 위로하엿다. 먹지도 못하고 와서 피로한 노동도 눈물겨워하며 하염이한번에 목숨만남은 그들은 본사의 구호반을 만나 손목을 붙잡고 감사의 눈물을 금치 못하엿다하다.

死傷萬六千

【경성전화二十六일발】 금번풍수해의 피해상황에 대하야 내무성 경보국(警保局)에서는 각 부현기사로부터 보고로써 二十六일 오후 六시현재까지의 확정사실을 보고하엿다는데 이것은 추후(後報)내상이 귀경하후 대체협의 기초 재료로써 각의(閣議)에 제출하기로 되엇다는바 그개요는 아래와같다.

一、死傷者及行方不明者 一萬六千三百六十三名
一、被害家屋 四十萬八百五十八戶
一、學校被害 三百十九校
一、橋梁被害 二千八百六十九個所
一、船舶被害 一萬二千三百九十三隻
一、道路被害 七千九百三十四個所
一、堤防被害 四千九十九個所
一、田畓被害 八萬二百八十六町步

風水災畵報 (上)倒壞된京都西陣小學校死體發掘作業 (中)大阪國際飛行場에올려노흔陸軍運輸汽艇 (下)大軌電車布施小坂間에서顚覆된慘狀

平壤爆彈事件重大犯

朴大烈、上海서被逮

경관살해사건、벽동사건관계

不遠京城으로護送

【상해로파원지알중전보】 평양폭탄사건、경관살해사건、및벽동(碧潼)사건의 중대범인 박대열(朴大烈)(二〇)은 지난二十二일 불조계(佛租界)에 잠복중이든바 총영사관(總領事館)경찰의손에 체포되어 방금엄중취조를 받고잇는중인데 대체의취조가 끝난후에는 불원경성으로 호송될 모양이다.

그런데 전기 박대열의 원적지는 황해도은률군(殷栗郡)一道面에 두고 잇다.

第二次太平洋勞組

卅三名終審求刑

咸興法院에서、言渡來月二日

最高十年、最下一年半

【함흥지국전화】 제二차태평양노동조합(第二次太平洋勞組)사건의 계속공판은 二十六일 오전十시에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법정에서 동원(東園生)재판장의 주심、대판(大阪)검사 입회하에개정되엇다. 개정하자 재판장은 장회건(張會建)의 심리부터 시작하야 피고三十三명의 심리는 오후三시까지 끝나고 즉시 입회 대판검사로부터 다음과같은 준엄한 구형이 잇엇는데 오후 四시 十五분경에 폐정하엿는데 언도는 오는 十월二일이라고 한다.

被告	求刑
▲朴在榮(三〇)	十年
▲張會建(三〇)	十年
▲崔辛德(二〇)	四年
▲金元鎬(三〇)	六年
▲許昌龍(三〇)	六年
▲宋仁集(二〇)	三年
▲朱善集(二〇)	五年
▲洪培植(二〇)	五年
▲尹致善(二〇)	五年
▲沈權俠(二〇)	四年
▲徐榮根(二〇)	五年
▲金炳默(二〇)	三年
▲許東(二〇)	四年
▲崔甲春(二〇)	二年半
▲徐正星(二〇)	二年
▲李明浩(二〇)	一年半
▲李宗熏(二〇)	二年
▲朴在郁(二〇)	二年半
▲朴齊煥(二〇)	一年半
▲韓英鎬(二〇)	執金一年十圓
▲金謙淵(二〇)	二年
▲殷允植(二〇)	二年
▲宋成寬(二〇)	七年
▲慶全(二〇)	六年
▲朱奕深(二〇)	四年
▲高明鳳(二〇)	三年
▲朴龍熟(二〇)	二年
▲張德浩(二〇)	二年半
▲申基標(二〇)	二年
▲陳秉模(二〇)	二年
▲朱致旭(二〇)	二年半
▲林國浩(二〇)	三年
▲李澈夏	四年

꾸지람을듣고

少年이鐵道自殺

鷺梁津鐵道길목에서

【시흥지국전화】 二十六일오후 四시四十분 노량진역(鷺梁津驛) 황정(荒井)포장뒤 철도길목에서 인천발경성행 第四百十六호 진행열차에 청년이 뛰어드러 부닥리가 잘리지고 머리가터저 절명하엿는데 조사한결과 수원군(水原郡)新豐里二百二번지장 장의훈(張議勳)씨의 독자 오장(五長)(一七)으로 평소에 소행이 불량하야 꾸지람을 받드러인데 흑심한 책망에 그같이 자살한것이라 한다.

휴지통

폭풍에 비참사 표사를 싣은 찌가빠진 소리를 내고 마당에는 개와장이 펄펄나는 광풍참해의 二十一일아침 ▲四三야왕촌 소학교 훈도七인은 아동을 강당에 모아노코 ▲조업이 눈앞에 닥처온 사선을 밟으면서 석우의 김신연햇다 ▲밖으로 어린 一二학년을 가운데두고 三四五학년을 차례로 물리고는 ▲六학년 자 ▲와르하고 는 一사에 도괴되고 말엇다 ▲ 내아들 내딸을 거정하야 학교로달려온 부형의 눈에 납작해진 교사와 떨고선 기기떠어리 ▲어머니품에 아버지팔에 안켜서 불려보내는 일님교원과 부형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말로 비오듯햇다 ▲각처에 학교아동이 가련하게 문허저 압사당한 수백의 아동중에 ▲학교가 전괴되어도 부상자하나도 내지아흔 우리의 일곱신생은 구세주이다 하고 ▲마을이 전부 합목소리로 감사의 사례를 드리고 표창해 줍시사고 ▲몸을 바처 아동을 건진 선생들에게 복잇으라

大阪三寶町 四百餘朝鮮人

四處에應急收容

判明된橫死小學生만十四名

倒壞、流失家屋六百戶

【大阪支局長金廷國發電】 이번 태풍의 피해가 가장 참혹하엿든 곳은 경도(京都) 대판(大阪) 신호(神戶) 등지의 학교와 동해도(東海道) 연안의 선여명학생의 사상이 잇다.

그런데 사망한학생중 조선인학생의 피해는 二十六일까지 판명된수는 十四명인데 그학생의 성명은 다음과 갈다.

대판학교(大阪鶴橋)소학교 제一년생 강○○(康○○) 제二년생 이재도(李載道) 제四년생 이은식(李殷植) 임○○(林○○) 전문미상 제三년생황오남(黃五南)과 경도부 서진(京都府西陣)소학교생 정방식(鄭芳植) 구순화(具淳和) 임채란(林采蘭) 남부순(南富順) 이이연(李伊蓮) 임문택(林文澤) 하조우(下鳥羽) 옥점달(玉点達) 이보찬(李寶讚) 팔번(八幡) 이능우(李能雨) 박성희(朴聖熙)등 이엇섯다.

그런데 가장피해가 심하엿든것은 대판시(大阪市)와 계시(堺市)경계인데 二十五일에 삼보정(三寶町) 일대를 방문하엿을때는 아직도 빠지지않엇스며 또 시체를 발굴중이엇섯는데 조선인의 횡사자는 기보한十五명이엇으며 四백명의 이재동포는 四개소의 수용소에 수용되어잇으나 二三일내에는 그곳을 나오지 안흘수없는 운명에 잇으므로 그장래가 자못 염려된다. 조선의 가옥피해는 도괴가옥 백호 유실가옥 二백호 침수가옥 三백호 파손가옥이 四백호에 달한다.

開城의女子卓球

淑明優勝

【開城】 高麗靑年會主催 第一回全朝鮮女子卓球大會는 豫定대로 二十四日 午前十一時부터 同會館大講堂에서 同理事會長林富植氏의 開會辭로 開會되엇는데 當日出戰한 他地選手는 京城同德軍과 淑明女高 金剛聯合會 個人 開城美理欽女學校等二十七名의 參加를 보게되어 大會는 자못 盛況을 이루엇다.

黃德順(淑明)對尹貞姬(同德)競技는 兩校의 對立的 決勝인 關係上 興味잇엇다고 하며 榮譽잇는 優勝盃는 淑明黃德順孃에게 도라갓는데 當日의 戰績은다음과갈다

【第三回戰】
甘金子(淑明)(3—1)劉貞鎬(京城)
朴春子(金剛)(2—3)韓慶熙(淑明)
車貞子(同德)(1—3)黃德順(淑明)
李己柱(淑明)(2—3)尹貞姬(同德)

【準決勝戰】
甘金子(淑明)(3—0)韓慶熙(淑明)
黃德順(淑明)(3—2)尹貞姬(同德)

【決勝】
黃金子(淑明)一等▲甘金子(淑明)二等▲韓慶熙(淑明)三等▲尹貞姬(同德)三等

◇寫眞은 開城女子卓球大會에 優勝한淑明軍一同

第一回國境蹴球大會

宣川體育會優勝

新義州朝鮮人記者團主催

【新義州】 新義州 朝鮮人記者團主催의 第一回 國境蹴球大會는 二十三日 午前十時부터 新義州高普運動場에서 開催되어 大會會長卓昌河氏의 意味깊은開會辭와 參加十一團體의 嚴肅한 宣誓式이잇은後 곧 競技가 始作되어 翌二十四日 午後六時까지에 競技를 끝막고(宣川體育會優勝) 壯嚴한 優勝旗優勝盃授與式이 잇은후 主催側과 優勝軍의 萬歲三唱으로 同大會는 盛況裡에 閉幕하엿다.

그리고 兩日의 競技成績은다음과갈은데 同大會에는 멀리 寧邊宣川과、鴨綠江저편 安東에서 多數團이參加하엿엇다.

【第一回戰】
○宣川體育軍 3—0 宣川 百合×
○新義州高普 5—0 新義州王子×
○安東 共榮 1—0 安東 中央×

【第二回戰】
○新 延 5—0 工藝 學校×
○東 祥 1—0 安東 共榮×
(延長二回)
○宣川體育會 3—0 三務 學校×
○新義州高普 2—1 寧邊 農校×

【準決勝戰】
○宣川體育會 2—0 東 祥×
○新義州高普 1—0 新 延×
(延長三回)

【決勝戰】
○宣川體育會 3—0 新義州高普×

大懸賞 締切 9.9.30 迫る

パレス 高級縫取模樣 繪羽織生地 千反

外二十萬名樣當籤大懸賞

▲明色美顏水 ▲明色粉白粉 ▲明色固煉白粉

其他美顏化粧品의外函으로パレス繪羽織生地를탄다!

パレス繪羽織生地 一反宛 一千名樣

明色粉白粉(肌色小形)又明色美顏水(小形) 一個宛 廿万名樣

그外에桃谷順天館奉仕에서「ほんとうの粧し方」(特別版三百頁) 一部宛 五千名樣

새로운水白粉!

懸賞課題

(一)明色美顏水에는白蘇가三種잇읍니다무엇무엇입니까?
(二)貴下의家庭에서購讀하시는新聞名
(三)貴下의住所·氏名·年齡

用紙
明色美顏水又는桃谷順天館發賣의化粧品의外函의裏面又는他用紙에알기쉽게써서一枚마다封書(十五錢)... 四錢까지를貼하야左記로보내십시오

보낼데
▲大阪市西區市岡元町五丁目 桃谷順天館懸賞係
又는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丁目 桃谷順天館懸賞係
又는 ▲平壤에잇는사시는다보일販賣店으로

(販賣店에서、무어서桃谷順天館으로보내기로되어잇읍니다)

締切 昭和九年九月末日
發表 昭和九年十月下旬(主要한日刊新聞紙上으로)

明色美顏水

白色 肌色 濃肌色

南遊寄信

【第四十二信】 鄭寅普

適海記 (二)

푸는바이로 배가나가니 도무 溶溶한大海다. 앞으로바라보이는 푸른같이된 高臺은 正中이오 아득하게 삐족삐족하여섬山들이 물결과 함께 잇다없다하는二個 그림같지도 아니하고 또 가깝지도 아니한 海中에 石山四五峰이 어찌도 奇巧하지 孤金剛보다 지나는 絕境이라하엿더니 「支那島」로오니 奇峯一群이 雲表에 皎映하야 눈에다이고 蒼翠같은 「天登山」과 圓秀하면서 飛動하기진 「飛鳳山」이 모다 半空에 昭然하야 아까보던 그景은 오히려 예뜻이것같다.

「古今島」는 밤에 지나간 때문에 風景景色을 眺望하지는못하엿으나 柳西厓詩에 「防山島 古今島 大海之中微船路 當時百戰李將軍 一隻手親扶天半壁」이라한 有名한 島嶼의 떼든지라 古今島라면 밤시 이때일이 눈에 어른거리고 高麗大覺國師 觀光의 詩에 「進來古今島」라 한것이 잇으니 「古今島」는 곧 「古今島」라 「古今島」 或 「古今島」라고도 하엿으므로 「今」과 俗音가 「今」字와 近似하야 誤稱된것이오 「莞島」는 더욱이지나서 海上에 비추는 燈火밖에는 못보앗으나 淸海鎭 鄭年의 앞이라는지 金陽의 軍事라는지 南海一鎭이 朝鮮古史에잇어 有數한 光彩이나 배가 莞島에 다닫지에 섯재 金陽의 奮闘하든 光景이 눈앞에 떠오르는것 같앗다. 점점 夜深하매 船行 人語이 없이 아니러지 깨어보니 밤시 四月 近洋으로 지나가는 帆船들이 별이떠오며 初日은 아속 나오지 아니하엿지만 海上은 환하야 보이는데 「羨」은 모두 [illegible] 남개썻이 갓더니 「碧衣島」위로 日光이 붉으며 거더 「羨」이 어느덧 自動한다. 봉숫하던 해가 半이나 나왓다. 海面에 正赤한 火柱가 나려서드니 全洋이 一時에 粉紅色이된다. 그리다가 一輪朱月이 두렷이 天際에 오르며 粉紅色 海面이 金碧으로 變하니 어른거리는것이 모다 金碧의 圓暈인데 무엇이 金碧대는 까닭에 圓이 바로되지를 못한다. 차차 「碧波津」으로 다가들어가니 盡彩一帶는 모다 珍島連峰오 그아래 海面은 山影에 덮이어 沈沈하다. 이一帶가 碧波亭를고 [illegible] 半頭邸들 만들고 다시 내민엇는데 내민 山麓이 곧碧波亭舊址다.

「碧波津」은 高麗시 일홈으로 「大津」이니 海南三枝院 院路와 聯絡하던 津路이다. 高麗元宗十一年에 三別抄가 王溫을 推戴하야가지고 珍島를 據하엿을때 城闕을 지엇던시라 지금도 山城周城의 殘趾이 남엇고 그때 金方慶이 蒙古將 阿海를 다리고 三別抄를치라와 三堅院에 屯하야珍島와對陣하엿섯으니 그三堅院은 곧 「三枝院」이다. 李朝의 碧波亭懷古 洪山一段雲詞를 보면 古郡臨滄海, 斷碣續靑汀, 欲尋往事上高亭, 臥[illegible]」이라한것이 잇으니 여기金方慶의記功碑가 잇던것같으나 지금은 [illegible] 다. 무어라 金方慶, 三別抄의 誰勝誰敗는 이미過場에 붙인것이려니와 碧波亭이라면 우신忠武當時를 생각하게되는데 [illegible] 는 [illegible]에 잇고 碧波亭은 [illegible] 會社出張所가 되엇고, [illegible] 景致나 [illegible] 무엇하랴.

學藝

鄕土의 가을빛 (其三)

예城터의 仲秋明月

光州에서 金泰午

仲秋明月!

이 얼마나 아름다운 音響이냐! 얼마나 맑고 깨끗한 詩的인 그대로냐! 오늘밤은 달도 밝기도 하다. 四時中에 가장 맑은때가 가을이오 가을中에 가장 밝은빛이 하늘이오 하늘中에도 가장 맑은빛이 달빛이라면 그中에 으뜸이 八月秋夕이라 하겟다. 그런데 옛사람이 노래하기를 ―

秋月이 滿庭한데
金風子는 저기러야
蕭蕭이 日高한데
님이갈줄 모르고서
밤중만 中天에 떠잇어
잠든나를 깨우는고 (宋宗元)

오늘은 陰曆八月보름 그리고 八月秋夕이다. 아직 南國에는 기러기의 消息은없으나 제법 싸늘한 바람에 寒氣가 도는것이 北天에서 기럭기럭 울어오는밤, 높다란 秋空을 뚫고 그야말로 맑은 主人公인 [illegible] 이다. 그러기에 나는 밤잠을 이루지못하고 무엇파기 [illegible] 허진 옛城터에 올라 [illegible].

秋夕날 하루밤기로
[illegible]에 오른것다
허진 옛城터에

明月따라 [illegible]
[illegible]에 귀뚜라미만
구슬프게 울더라. ×
光州川 구비치고
無等山이 높앗는데
金剛山 어데가고
[illegible]은 어데갓노
蒼空에 一輪明月도
수심지고 가라

이러한 即興詩를 지어보며 옛날의 歷史的遺跡을 더듬어보는 이 나의 가슴에는 서글한 感想뿐이 남길뿐이다.

하얀달빛은 자최없이 大地우에 떨어지고 잇고나 그리고 저편 老松이 푸르른것에 달빛이 새여나리어 곱다운 그림자를 던지고 잇고나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솔잎이 洋琴을 치고 온갖 잡풀 욱어진풀에서 가을의 못버레들이 애달픈 심포니를 演奏하고잇다. 眞珠같은 이슬방울이 반짝 반짝 光彩를짓는 풀바을 거닐고 잇을때 달빛은 유난히도 희고 푸른빛으로 이엉을 노려보고 잇더구나. 봉게봉게 서리어 깊은 잠속에 빠진듯한그윽한 밤이다. ◇

나는 다시금 발을 돌리어 不動 [illegible] 옛城터리에 앉앗더니 되엿다. [illegible] 푸른빛 그中에도 맑은것만 [illegible] 月影이 풀우으로 떨어지는무니 그리고 가벼운 微風이 살살 옷으며 풀우로 기어가는구나. 달은 [illegible] 우에서 하늘하늘 춤을 추고 [illegible] 金波銀波를 이루며 신음 [illegible]

가슴은 [illegible] 노래하며 울러가면서 잇구나.

냇물우에 어른어른
달이춤추네
소나무우에 솔잎이
춤추고잇네. ×
산들바람 살랑살랑
달이춤추네
물결따라 하늘하늘
춤추고잇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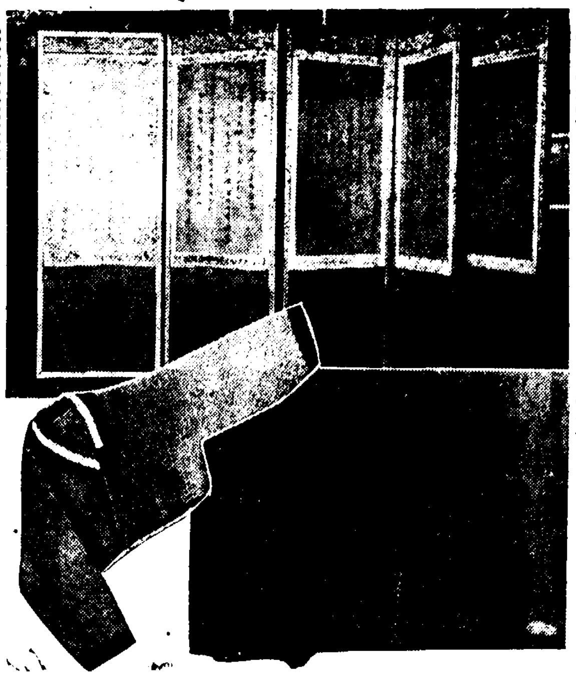
나는 언제인가 이原籍의 [illegible] 果然 저 이[illegible] 한 어떠에게 보내고싶은 생각이 떠오른다. 아! 맑은 달빛이다. 떠나 거닐고 거닐것은 다 [illegible] 고 달빛과 [illegible] 달아! 하늘이 맑고 푸르라 맑은 푸른빛으로 씻은 맑고 푸른 [illegible] 노래하고 나무가지는 춤추리라.

新刊紹介

▲中央 十月號 [illegible] 最近米國經濟의動向 朝鮮時事問題短評, 制服의 女學生 찾어서(一新篇)等其他定價二十錢 發行所 京城府[illegible]朝鮮中央日報社 振替 京城五一七八番

▲朝鮮詩壇 第八號 定價二十錢 發行所 京城府[illegible] 振替 京城五四八七番

學生作品展入賞畫帖 (4)



(上)【中等手藝、賞】 繡屏 京城女子高普校 金奎琥、文順福合作 (下右)【中等手藝、賞】 알법 北眞女校 裵尙花 (下左)【初等手藝、賞】 [illegible] 淑花女普 吳福淳

學生作品展入賞者訪問記

初等手藝 (賞)

淑花女子普校五年 吳福順

本校수예에 입상된 오의순양을 하교로 찾아 선생님을 먼저 뵈옵고 가다하 맞나기를 청하니 [illegible] 하다고하시며 곧 [illegible] 자랑이 [illegible] 집으로 찾아가주 [illegible] 순양이 어머니를 도와드리라고 [illegible] 바느질을 잘하기에 [illegible] 이 눈에띄워 [illegible] 여기도 모범생이 하니잇는것을 한번 더 기쁘게 생각하고 어머니께 인장 생활을 물으니 [illegible] 아줄사람이없어 학교에서 오기만하면 어린동생들을 거두어주고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고 틈틈이 공부를 하다고하시며 아침에도 일찍 다니는 동생을 의순양이 머리빗기고 옷입혀 깨끗이 거두어 가지고 다니는데 [illegible] 틈

初等圖畫 (賞)

校洞公普六年 金榮來(十三세)

本집 도화에 입상된 김영래 군의 집을 찾아가 [illegible] 니 어머니께서 하마디에 [illegible] 시고 [illegible] 치하하시며 제나 영래군의 자랑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illegible] 말이 보통 다른아이 보다는 다른듯싶습니다.

아침 학교에갈때는 일찍시에 밥만먹고 가개되면 저녁에와서 저녁먹고 다시 선생님 댁에 가시 늦도록 [illegible] 중하에 입하한 준비를하고 밤열두시쯤하야 도라오면 생각하여 [illegible] 니다.

[illegible] 시는것을 가자도 역시 아갑다고 [illegible] 다니다 재미나 [illegible] 서 송아 [illegible] 하고 집에 오면 도서관에 가 [illegible] 없어야기 하는대도 [illegible] 못의 사람들이 그댁 아드님 [illegible] 모범만치 집에는 잇지안고 오직 도서관 선생님댁 집으로 [illegible] 특수한 성경을 가젓다고 볼수잇으며 평일에는 용사성하에 입학시키라고 [illegible] 무엇이든지 되지안코는 [illegible] 다는 결심이 있어보이엇습니다.

續朝鮮最近世史 (159)

甲午以前의內情

東學亂과日淸戰爭 (12)

李瑄根

袁世凱의 [illegible] 朝鮮의 奸黨이 秘密裡에 露國公使韋貝에게 [illegible] 露國의 保護를 請하는同時 各國과 平等케되기를 欲求하되 萬若 이에協賛하지아니하거든 [illegible] 露國側에서 派兵相助하야주기를 請하엿다고하다. 露國公使韋貝는만드시 이를 露國에 電報할것이오 露國政府로도 구사 拒絕할 理가없다고생각되는다. (中略) 袁[illegible]은 熟考하기대 이같은 秘密이라고하지만 이미 그機密이 綻露되지라 遲疑遷延하다만 結局 亂黨을[illegible]하고 國君을 廢하지안코는 局勢를 挽回키어렵게될것이다. 그런데 中國으로서 이제 即時派兵하야 此等處理케되면 이는 [illegible] 露國의 保護를 拒否하는것으로 各國이 [illegible] 을 더하야 [illegible] 게될것이다. 그러므로 [illegible] 에 잇어서는

李鴻章

朝鮮電報[illegible] 派遣하야 電線[illegible] 을 口實로하야 後 [illegible] 에 袁世凱, 大院君等과 [illegible] 하야 亂黨을 誅戮하 [illegible] 면 一面으로 [illegible] 小局 誅除하는 同時 一面으로 北洋에 電報케하야 派遣하여 이機[illegible] 보아가며 [illegible] 것이다. (中略) [illegible] 야 [illegible] 이라하는 [illegible] 스스로 亂黨을 誅除하[illegible] 리이다. 李[illegible] [illegible] 께 [illegible]

잇다면 袁世凱의 [illegible] 周到 各國을 [illegible] 進行할方策을 講究케할것인바 日, 英, 露三國은 朝鮮의 內亂을 [illegible] 하면 반드시 軍艦을 派遣하야 巡邏에 當할것이로 日, 露兩國이 或은 陸兵을 上陸시킬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我兵이 [illegible] 나는대로 直時 機先을 制하야王京에 進入駐屯한다면 그들도 [illegible] 하야 [illegible] 는 못할것이며 我의 出師를 敢히 無名之師라고도 못할것이라 [illegible] 日, 英兩國은 반드시 露人의保護를 願치 안할것이므로 그다지 [illegible] 내지안흘것이오 露人은 內心이 러한情勢를[illegible] 지는 [illegible] 我와 [illegible] 는 [illegible] 將來에잇어 [illegible] 은 [illegible] 의 [illegible] 永興灣을 占領케되든가 或은 中國과 [illegible] 朝鮮保護의 協約을 [illegible] 하고저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但只奸黨의 作爲로[illegible] 信書를 [illegible] 朝鮮保護의 [illegible] 으로삼아 中國으로하여금 安南事件의 前例를 [illegible] 할것이다. 그러나 此事變가 [illegible] 된다면 그結果는 [illegible] 않이라 (中略) [illegible] 題로 露國側에 朝鮮의 [illegible] 을 [illegible] 지팔라고 [illegible] 하는同時 中國側의

袁世凱

態度를 [illegible] 하야 露國으로하여금 깨닫게 [illegible] 하엿다. (下略)

이러한 李鴻章의 [illegible] 에 對하야 淸廷은 即時이를 採用키로하고 李鴻章에게 大[illegible] 한 訓令을 나리게되엿다.

(前略) 아즉 情勢가 未定이니 [illegible] 露國에 防備함으로써 爲主하되 李鴻章은 出兵 [illegible] 事에 [illegible] 마땅이 決斷하야 [illegible] 야 [illegible] 至의 計劃을 [illegible] 事에 先하 [illegible] 야 [illegible] 하야 一次 [illegible] 이 잇다면 直時 電報하야 [illegible] 하기바란다.

云云(以上 [illegible])

淸廷의 態度가 이같이되매 李鴻章은 即時 [illegible] 에 出動命令을 나리는同時 暗暗裡에 [illegible] 하야 [illegible] 後의 準備까지 차리게되엿다. 一面 이러한 [illegible] 가 [illegible] 에 [illegible] 그는 [illegible] 의 [illegible] 이 [illegible] 에 [illegible] 表[illegible] 迫的態度로 朝鮮政府에 對하게되엇다. [illegible] 아니라 다시 李鴻章에게 打電하되

袁世凱는 [illegible] 撤退하야 [illegible] 이제 上下가 [illegible] 되고 [illegible] 의 [illegible] 五百 [illegible] 것이다. 國王파王妃는 [illegible] 파갈이 [illegible] 國파 [illegible] 이 [illegible] 時日이 [illegible] 刻化하야 中國이 [illegible] 하여도 매우 어려울것이다. [illegible] 라 此非常한[illegible] 業, 日夜焦急하지 마지안는다. 엽디어 [illegible] 失態기 없도록 해주기바란다.

學生欄

裏南洋에旅行하고 (三)

慶應義塾經濟學部 孫商鉉

支廳內에는 [illegible] 行政과警察을 [illegible] 하고 잇다. 南洋廳은 財政的으로 [illegible] 和六年까지는 國庫補助金으로 [illegible] 되엿으나 七年以後로는 財政이獨立하게되엇다. 그原因은 [illegible] 社의 事業發展에 따라서 砂糖及酒精의移出이 激增한結果 이에對한出港稅가 增收된 [illegible] 이다. 이것이 年三百萬圓 以上이라 한다. 故로 南洋의 [illegible] 產業, 移民, 政治及財政은 [illegible] 會社와 [illegible] 하야 [illegible] 本과 [illegible] 의關聯을 [illegible] 表示하고잇다.

이 [illegible] 島民敎育機關인 公學校에서는 日本內地에서 [illegible] 課程을 [illegible] 제도는 本科三年 補習科 二年으로되엇는데 「아다」 島公學校는 本科와 [illegible] 하야 [illegible] 施設되어[illegible] 는 [illegible] 校의 生徒數는 約三百名인데 男女生徒이라하야 [illegible] 와 [illegible] 가르치지 아니하고 [illegible] 글을 [illegible] 唱歌, 이야기等은 다 日本語이다. 生徒들은 [illegible] 大部分 [illegible] 洋人같이 생겻는데 皮膚色이 우리보다 좀검은 [illegible] 衣服은 [illegible]

島民이라는 [illegible] 數大의 [illegible] 人이 [illegible] 南洋[illegible] 土人이라 [illegible] 다. 南洋 [illegible] 「가나까」族이 多數이오 「마리아나」群島에는 「자모로」가多數이다. 그러[illegible] 「자모로」族은 西班牙와 獨逸[illegible] 에 [illegible] 生活[illegible] 「자모로」 [illegible] 比率[illegible]

今日프로

日曜木 JODK

晝間部

▼午前十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 日用法時勢 京城府[illegible]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零時五分 [illegible] 曲 [illegible]
▼零時四十分 뉴스
▼二時 趣味講座 [illegible]
▼四時 뉴스 [illegible]

夜間部

▼六時 하―모니카二重奏와獨奏 研究會 [illegible]
▼七時 뉴스 天氣豫報
▼七時三十分 文藝講話
▼八時 合唱과피아노獨奏 [illegible]
▼九時三十分 [illegible]

第一放送

▲午前六時(東)ラヂオ體操▲六時三十分(大)[illegible]▲七時一分(京)[illegible]▲[illegible]

明日프로

▲午前十一時五分氣象通報、料理法日用品時勢▲正午時報、今日프로그람發表▲[illegible]

人間問題 (46)

姜敬愛作 李靑駒畫

첫재는 드디어 발을 떼우고 말앗던것이다. 오늘 군수영감의 말을 들으면 이 면사무소는 농민을 이 잘살기 위하야 잇는 곳이라는데…… 여기까지 생각하 [illegible] 자기만은 이동네의 농민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부쩍는다. 덕호로 말하면 이면의 어른인 면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잇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말을 그에게 배우지 안앗는가? 아니는 그때 그주부의 마음 [illegible] 밥에 [illegible] 다. 오늘 군수영감의 말씀 역시 내가 [illegible] 지 안흐면 [illegible] 이 없는데 그러나 [illegible] 말을 [illegible] 하나? 그는 남이 갈수록 [illegible] 대하야 집집이 [illegible] 되어 그의 가슴을 안타깝게 [illegible] 이다. 그는 생각지 말자하다가도

가슴속에서 뭉치어 일어나는 이뭉청이―그스스로도 제어 하는수가 없엇다. 첫재 자신은 이신성 불가침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쓰나 웬일인지 남이갑스록 자신은 이법에 걸려들어 가고 잇는것을 안타깝게 발견 하엿던것이다.

집까지온 첫재는 나무까리 옆에 우뚝허니 서잇엇다.

「어떠케 하담?」 그는 이러케 중얼거리며 그의 앞길은 암흑으로 변하여지는것을 보앗을 [illegible] 는 쓸쓸한 경우에 감촉과 같이 확실히 느끼어졋다.

그때 장부버치는 소리가 바삭 바삭 나므로 휘근 머리를 돌리니 그가 새끼꼬다가 노코서 면사무소에 갓던 기억이 얼핏 생각히우며 이서방이 분명하려 가지안코 오늘은 집에 잇는가하야 얼른 들어왓다. 방문을 여니 갑작이누가 방안에 앉앗는지 알수가 없엇다. 그저 캄캄한속으로 장부버치는 소리만 들릴뿐이다.

「벌서 오니? 웨 오라던?」

방안에 들어 안은 그는 어머니가 새끼꼬는것을 비로소 발견하엿다. 첫재는 머리를 벅벅 긁으며,

「군수 연설 들으러오라지」

첫재어머니는 실망하여 꼬던 실을 밀어놋는다. 아까 면서기가 면사무소로 첫재를 오라고 할때는, 아마 도루 밭을 부치라고 하라나?하는 다소의 희망과 의문을 가젓는데, 아들의 이러한말을 들으니, 야수 낙망이 되엇던것이다.

첫재 역시 어머니의 이러한낙망을 손에든것처럼 고여들엇다.

어웃수가 잇엇지만, 누가 쌀한줌 줍지하나.

「이거 웨 귀찬케구는지 모르겟다!」

첫재는 소리를 버럭질럿다.

「오냐 이놈아, 어려서부터 네놈이 어미의 머리꼬랑이를 잡부로 뜨어내더니, 그버릇이 이때껏 남아서 밥줍게되엇으니 좃켓다!」

「응 잘한놈젓 내가그랫겟군!」

「그랴, 그래서 너누구덕에 밥먹고 크놋아ㄴ냐, 이놈 너도 지내봐라! 누가 잘못하고싶어 잘못하는줄아냐? 나도 배 고파서할수 없으니 그랫다! 너두 지내봐라! 어디이놈!」

첫재는 이입에 귀가 번쩍 띄며 이상하게도 가슴이 찌르르 울렷다. 그러고 나도 배가 고파서 할수없으니 그랫다, 너두 지내봐라! 하던 어머니의 말이 상대와 같이 그의 가슴을 선뜻 찔르는듯 하엿다. 한수 없으니 그랫다! 이것도 무슨 말인가? 또다시 그잡마리가 투루룽 팅이가 저서 올라 오려고 하엿다. 그는새끼꼬는 줄을 밀어내고 벌거 일어낫다. 그러고 벼락치듯 문을 열어 제치고 나와 버렷다.

어느새에 싸락눈이 바삭바삭 떨어지다. 뜰 한모퉁이에 싸하든 나무까리에 싸락눈 싸이는 소리가 한층더 뚜렷하다. 그는 저싸라는 보니, 한층 더 가슴이 죄여 들엇다. 원 나무나 해다 팔아서, 쌀말이나 마련해 올가……그러니 그놈의 사람갑시곰들이 무슨 베게해야지……벋? 그는 발길을 홍하고 드노핫다.

◆滋養强壯飲料로……
◆强腦强精의目的
◆神經衰弱잇는분
◆不眠숨갑분사람
◆疲勞倦怠한사람
◆貧血冷病잇는분
◆呼吸器弱한사람
◆胃腸衰弱한사람
◆根氣薄弱한사람
◆虛弱體質가진분
◆產前產後의婦人
◆病後恢復期等等

信州伊那の谷名產 製法日米專賣特許

鹽澤家傳 養命酒

◉全國有名藥店、百貨店에잇

注意 가짜가잇으니 [illegible] 오

信州上伊那郡[illegible]村大草 製造發賣元 養命酒本舖天龍館
東京麴町區上通四丁目 出張所 養命酒本舖出張所

나이보다젊고元氣로부러운精力家에게

食慾도나고튼튼히살저서

그養生法을듣고서

試驗해보면누구나感心

悲觀하든老衰도 精力의躍進을깨달아

東京府下[illegible] 靑木茂平

나는 六十歲의 今日 元氣잇게 生活하고잇는 [illegible] 니다. 그러나이것은 養命酒를 [illegible] 愛飲하고잇는 德分으로압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illegible] 年에老衰病者[illegible] 으로, 非常히 苦生하고, 精力精氣[illegible] 하엿든것입니다. 그러다가 [illegible] 에서 廣告를보고, 知人이勸하는여러가지 [illegible] 이나, 何等反應는없엇습니다. 그런데 [illegible] 놀라운精力의躍進을깨닷고 元氣가旺盛해저며, 老衰[illegible] 精力旺盛하야 [illegible] 生活이되게되엇습니다. [illegible] 마는[illegible] 이기쁨을記錄하야 [illegible] 에供합니다.

(靑木茂平氏의 [illegible])

實感을味得하라

最近、各方面에强壯劑의養命酒가[illegible] 愛飲되어 [illegible] 로 腦力과精力을 [illegible] 는데 이보다 [illegible] 實한體驗을知人에게 [illegible] 이만교 [illegible] 마기始[illegible] 는사람 [illegible] 보면 [illegible] 實感을味得 하야傳하고傳해서宏[illegible] 評判이되 이今日같이世上에 有名하게되엇으니 誰某던지한번은 試驗해보십시오. 貴重한深山仙酒이므로朝夕에조곰씩먹으면 確實히[illegible] 하다고首肯하실것입니다.

小瓶進呈

意外 [illegible] 秀香美味、上[illegible] 잇다는것을實物로紹介하기爲하야 [illegible] 飲用小瓶一本無料로[illegible] 所로곳東京養命酒本舖[illegible] 로보내시압

平元橫貫踏査

車窓에스치는 가을의農村點景 (一)

崔衡鍾

서울서 午前 어제 四十分에 車ㅅ가는車를 탓다. 北鮮의 西에서 東까지 내가 이번에 밟아보려하는 路線이니 아침에 일부러 떠나게 되엿음은 車窓으로 이어가는 가을의 自然美를 보자는 計劃이 잇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불은 일족부터 부실부실 나리는 비가 窓硝子에 부딪처 떠러지기 始作하야 구슬갓흔 비방울이 [illegible] 보는것이 도무지 내다보이지 아니한다. 부질업슨 [illegible]

[illegible]

□

中和驛에 왓을때가 午後二時二十五分. 비는 개엿으나 하늘은 아즉까지 검은 구름이 덥히어 [illegible]

[illegible]

(寫眞은 順川農村의 一部)

産業

産業에對한知識은 實生活에切實한要求

◇…一般投稿도歡迎

여러분이 要求하시는 産業 [illegible]

一、有利한産業

一、副業成功記

一、生活斷想等

一、各種造作法

(産業部係)

副業品時勢

京城府內 廿五日現在

◇蔬菜類 ◇養鷄飼料 ◇果實類 ◇川魚類 ◇家畜類 ◇毛皮類 ◇穀用叺 ◇其他副業品 ◇養鷄用金網 ◇購買品 ◇藥草 ◇米及雜穀

[illegible]

加速度로發展하는 鑛業朝鮮의全貌

─特殊鑛開發이增─

三、鑛産額

昭和八年中의 鑛産價額은 四千八百三十萬千 [illegible]

昨年中鑛産額 (前年比較)

[illegible]

神聖堂 신성당

아침해빗갓치 흥왕하는 신성당

해가뜨면 별이 업서진다

七大名藥 칠대명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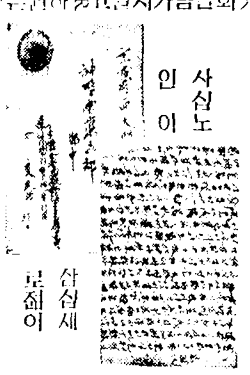
보양보음은 젊어지는 약

가이자가 제일이요

효력최극상 최특등 동서양에 제일유명한 약의 징표만 만히 느잇답니다

사람이 제일 몹시 강하야 하고 십은 마음을 하는대 근래는 사람이 적고 약한 분이 만타. 신경쇠약이니 양기부족이니 원기가 부족하야 마음대로 일을 못하게 되다. 그리하야 인생의 제일 향락을 마음대로 못하는것은 문병이야 [illegible] 생존경쟁이 심하고 뇌를 만히 쓰게되고 애를 쓰고 [illegible] 원기쇠약하게 되다. 따라 양기 업고 최후에는 신경쇠약이니 폐병이니 하고 오래못살고 새상을 비리게된다. 사람은 보통 백살까지는 수명이 잇으나 [illegible] 원기가 왕성하여야 사회에 [illegible] 인생의 향락도 [illegible] 가이자(KATZER) [illegible]

【약가】[illegible] 송료는 대금인환은 사십오전, 선금은 십오전 (약은 환약이오)



사십노인이 사십세 로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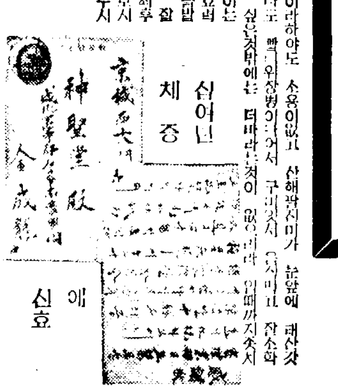
체증과 속병엔 게오ㅣ

효력최극상 최특등, 최근에 전세계에 유명한 후에 퀘에제도만히드럿고, 세계적대신발명한약 제도 진보답 만히 되엿답니다

무병이장자요 신외무물이라 병이잇고는 전세계재산이다ㅣ자기것이라하야도 소용이없고 산해팔진미가 눈압에 채려잇서도 먹고싶지안으니 [illegible] 위장병이 잇서서 구미잇시 [illegible] 건강한육체로 활발하게 남과갓치 활동을하고 십은것밧에는 더바라는것이 업서 [illegible] 빵으로 별별치료를 대개하여 [illegible] 위장약 [illegible] 치료하여도 잘 안되여 끝난하는 분은 최후로 한번 시험하시고 인생의 최대행복인 건강미를 맛보시오. 이약은 남녀노소없이 유아 가기에 신효하니 가정상비약으로 부는것이 우리의생상 제일필요합니다.

◇이런증세에쓰시오◇ 소화불량, 만성위장카다루, 지피, 위피양, 구미없는데, 신경쇠약, 위확장, 위하수증, 위하수증, 구신조신맙주체, 담체, 회지, 냉체, 식체, 회치등, 숙체증이든지 단시간에 못습니다. 약은 가루약인데 하루에세번식후반시간후에 온수나 냉수에 먹읍니다.

약갑 완고용 (重症用) 하갑 삼원 중증용 (重症用) 하갑 이원 경증용 (輕症用) 하갑 일원 지방송료 선금이면 전 대금인환이면 사십오전 (약은 경성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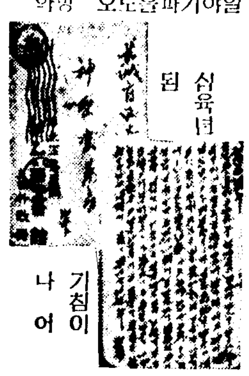


십여년 체증에 신효

기침·담·천식엔 엣치빠ㅣ가 제일이요

남녀노소없이 대개기침을하는것인데 이러해된 천식해소 천속으로 별별약을쓰고 별별치료를하여도 안낫는해소가 신발명한 엣치빠ㅣ 일주일분으로 곳효를보앗다 [illegible] 기침은 [illegible] 담이 [illegible] 근하여 [illegible] 조금식 바른기침하는대 기침은 안해도 장ㅣ담이 나오는대ㅣ

【약가】완고용 삼원 중증용 이원 경증에 일원 지방송료 선금이면 십오전 대금인환이면 사십오전 (약은 경성신성당으로 주문하시요)



십육년된 기침이 나어

림질과 대하증에 구로벨

구로벨이 제일이요

효력최극상 최특등, 전세계에서 제일유명한 독일약(해루미도ㅣ루)도만히들엇고 세계적대신발명한 약제도 진보답만히 되엿답니다

◇남녀만성림질, 부인적백대하증, 남녀 냉병, 오슴소래, 월경고르지못한데며, 하혈(下血)등으로 벌써 치료를하여보고 별별약을써도 무효하야 돈만허비하고 그치안되어 고통하는분은 이것저것 주저할것없이 안심하고 제일먼저 시대신 발명하신 KUROBER(구로벨)을 쓰오. 구로벨은 독도없는 참신기한 약이라 틀림없이 대효를봄니다. 이러한 자신(自信)을 이든실파한자의 안심과 신용을 엇기위하야 장담하오니 안심하고쓰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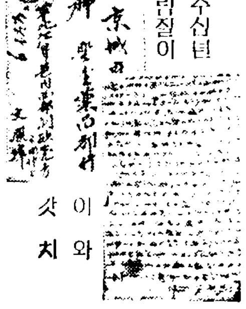
구로벨의 특장

一、여러해된고질 특히재발한 만성림질파 대하증은 불론 림독성으로된 방광염 고환염 (산증) 섭호선염 자궁내막염, 란소염, 라팔관염, 도힘차등에 대효가잇고

二、이약은 다른약가치 지리하게 오래안먹고 만성간에 오래된 고질만성 제증이라도 일주일이상 먹을필요가없고

三、림질약 치고 위장이 안상하는약이없는데 구로벨만은 조금도 안상하고 다른부작용이 조금도없음으로 위장이약한분이 먹어도 트림하나 안난다는 말은 대효분의 찬송하는 점이오 그런데 이약이 속효가나고 다른약으로 잘 안되는것은 다른약은 오래먹게되여 그동안 소섭이 곤난한 소시다

【약갑】완고약용 九원, 만성기타제증에 五원, 대하증 냉병기 부인용에 五원, 부인오좀소래에 삼원, 지방송료 선금무료, 대금인환은 삼십전 (오원이나 삼원이나 다 일주일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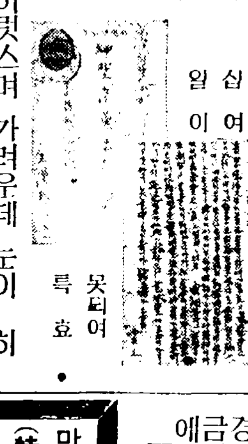
수십년 림질이 이와갓치

매독에는 푸로다ㅣ가 제일이요

효력최극상 최특등, 륙백륙호이상의 효가 난답니다

매독은 선천후천두가지로 선조유전또는 전염으로 발생하야 대개는 사람들이 상속 륙백륙호주사 몃대하여야 겨우일시적으로 눌너지지만 완치가 잘 안되고 여러번 재발함으로 이세상에서 매독이 없서지지안함을 보드라도 파언이아기 지고는 불완진하다 하고 완치하도록 피업없애 나라 그래서 이번에 완전한점을 사가 위하야 다년고심연구한결과 주사없이 먹는약으로 일주일에 대효를 볼수잇는 매독약(푸로다ㅣ PROTER)을 발명하엿다. 여러가지로 치료하여도 아니되여 고통하는분은 곳시험하여 보시오. 안심하시고 염여마시고 쓰시요. 이런분은 쓰시요 ○남녀의국부가 허렷스며 가려운데 눈이 미하고팔다리가쑤시고목이잇고 머리가빠지며 여기저기 가려지는데또창병감창코 등에 신효합니다.

【약가】완고용 칠원, 중증엔오원, 경증 삼원, 송료, 선금이면 십오전 대금인환이면 사십전 (약은 환약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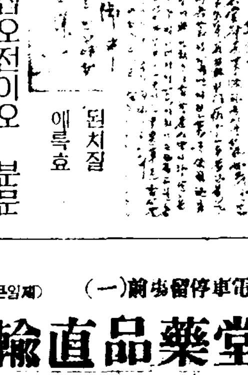


십여일에 못되여 특효

치질에 엥구루가 제일이요

누구나 불론하고 대개치질이 잇는데 이러해된 치질로 수술을 몃번이나 하고 조선약 한약 상약 별별치료를하여도 종시 낫지안튼 치질이 엥구루(ANKUR)이주일분으로 대효를 보앗스니 [illegible] 이약 곳효력을 볼수잇다 다음가는 [illegible] 피나는대 황문이 빠지오 [illegible] 는대 암치질 숫치질 치루 치질해 무슨치질이든지 치료됩니다

【약가】중증이 이원 경증엔 일원 송료 선금이면 십오전 대금인환이면 사십오전 분에 느키도하고 바르기도하는약 【약은 경성 신성당으로 주문하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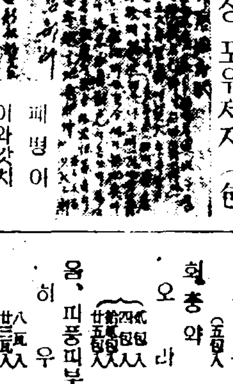
이십여년 치질 된 특효

만일 무슨약이든지 이삼일쓰시와 특이성의 체질(特異性體質)노 병에안맛거나 광고와 틀니는점이 잇거나 마음에 안맛거나 현저한 특효가 없거든 약을곳보내시오 청구하시는대로 하여드리겟습니다

부족증·폐병·륵막염엔 나오빠ㅣ가 제일이요

폐병은 불치의 난병으로 일년에 사망자가 수십만명이 되는데 종래의 치료가 불철저한것갓다. 그때까지는 즉 접한부의 균만 죽일나고 드럿스니 그래서는 점대로 안낫는다. 살균도할 필요도잇지만은 한편으로 몸도 보하고 원기를 도아주어야 한다. 그뿐더러 잠식(蠶食)하는 부분을 막는 법이 새로 발명되엿다. 즉 살균보힘강장 포위제지(包圍制止)의 삼작용을 일시에 하여야된다. 이삼작용을 식히는대 종래에 여러가지 치료법이 잇섯다. [illegible]

【약가】삼기용 이십원, 이기용 십원, 초기용 오원 송료 대금인환이면 사십오전 신금이면 십오전 (약은 경성신성당으로 주문하시요)



오륙년된 폐병이 이와갓치

새로나온명약 판려하는 신성당 제약

소체위장약 神聖靈丸 / 감기약 가제나ㅣ루 / 두통약 도나ㅣ루 / 학질약 마라리 / 촌충약 도루사 / 회충약 오라가 / 치통약 하루 / 옴, 피풍피부병약 히우도 / 안약 神聖目藥 / 상처약 / 회충약 神聖沃度丁幾 / 감기약 [illegible]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一) (제일큰서양약점) (그전신성당약국)
電話光化門三三四番 ・ 振替京城四九五〇番

ClibPDF - www.fastio.com

三南水災義捐金品

【本社接受=二十六日午後五時까지整理分】

現金累計貳萬九千七百五拾六圓

◎金拾四圓五拾四錢也 廣梁灣分局取扱

金拾四圓七拾九錢中旅費貳拾參錢除實入金拾四圓五拾四錢也

(內譯)

參圓 龍岡溫井 敎會信者一同
壹圓拾錢 龍岡溫井엄엇靑年會
貳圓 廣梁灣井里 金永實
壹圓 廣梁灣石□里 胡模勳
壹圓 廣梁灣市 鄭得洙
壹圓 同 任英淑
五拾錢 同 金正蓮
貳拾錢 同 李韓善
拾錢 同 宋元奎
拾錢 同 朴多愛
五拾錢 廣梁灣金谷 車熙淳
五拾錢 廣梁灣市 魚信□
參拾錢 廣梁灣市 李浩潑
貳拾錢 同 金濟鼎
貳拾錢 同 金時衛
拾錢 同 魯永柱
拾錢 廣梁灣大同里 姜明姬
拾錢 同 張蓮惠
貳拾錢 廣梁灣市 郭興健
參拾錢 同 無名氏
貳拾錢 同 李得贊
拾錢 同 李永典
拾錢 同 金元植
拾五錢 同 金德三
拾錢 食谷面里下里 車東均
拾錢 同 車用均
拾錢 廣梁灣市 金大錫
拾錢 同 金壽鉉
拾錢 同 金冕植
拾錢 同 小玉
拾錢 同 朴相稷
拾錢 同 吳宅俊
拾錢 同 車重均
拾錢 同 無名氏
貳拾錢 廣梁灣鴨下里 崔世元
五錢 同 姜邁英
五錢 同 魯正鎭
五錢 同 金順熙
五錢 同 郭昌萬
五錢 同 金俊錫
五錢 同 洪啓贊
五錢 同 全吉南
五錢 同 無名氏
五錢 同 田中

◎金五圓貳拾四錢也 晶城支局取扱

(內譯)

參拾錢 晶城郡田貴面新坪里 姜鴻達
參拾錢 同 郭子成
貳拾錢 同 李步燕
貳拾錢 同 許萬和
貳拾錢 同 鄭子胤
貳拾錢 同 金賢彬
貳拾錢 同 金國均
貳拾錢 同 金學淡
貳拾錢 同 金世浩
貳拾錢 同 文明浩
貳拾錢 同 崔浩應
貳拾錢 同 金龍河
拾錢 同 安敎泰
拾錢 同 崔學海
拾錢 同 金成振
拾錢 同 姜鶴達
拾錢 同 姜元奎
拾錢 同 李興燁
拾錢 同 金成大
拾錢 同 朴尙禹
拾錢 同 姜鵬達
拾錢 同 姜大熙
拾錢 同 姜白雲
拾錢 同 韓學英
拾錢 同 孫洛京
拾錢 同 洪洛鉉
壹圓 晶城邑內 姜觀鉉

◎金拾圓六拾六錢 忠信學院取扱

(內譯)

拾錢 京城府崇信洞忠信學院 一學年一組 李石白
拾錢 同 朴容詰
拾錢 同 池龍起
拾錢 同 尹現烈
五錢 同 金元定
五錢 同 邵永三
五錢 同 文元植
五錢 同 林長松
五錢 同 李榮伊
五錢 同 金大元
五錢 同 南校熙
五錢 同 姜昌根
五錢 同 金甲成
五錢 同 李丙稷
五錢 同 陳龍宣
五錢 同 韓昌洙
五錢 同 金正龍
五錢 同 朱榮煥
五錢 同 權熙明
五錢 同 朴二鉉
五錢 同 金鐘喆
五錢 同 李昌洙
五錢 同 金得福
五錢 同 韓龍基
五錢 同 羅鍾洙
五錢 同 河春成
拾錢 二學年二組 金玉順
拾錢 同 閔基玉
拾錢 同 全玉子
拾錢 同 崔興福
拾錢 同 黃學淑
拾錢 同 張徽煥
拾錢 同 金英玉
拾錢 同 池貞淑
拾錢 同 張孝順
拾錢 同 李點福
拾錢 同 李濟子
拾壹錢 同 安立粉
拾錢 同 金甲平
拾錢 同 李慶愛
拾錢 同 金英順
拾錢 同 李英愛
拾錢 同 孔玉男
拾錢 同 金仙姬
拾錢 同 李順伊
五錢 同 姜允玉
五錢 同 金辰男
五錢 同 李孝順
五錢 同 李鳳俊
五錢 同 卞貞姬
五錢 同 文瑛順
五錢 同 趙貞淑
五錢 同 朴鍾玉
五錢 同 陳貞淑
五錢 同 崔鎭洙
五錢 同 李英項
五錢 同 沈玉來
五錢 同 金敬淑
五錢 同 姜福成
五錢 同 權熙吉
五錢 同 朴仁成
五錢 同 金順性
五錢 同 金載姬
五錢 同 車銀淑
五錢 同 白承玉
五錢 同 李丙允
五錢 同 池元子
五錢 同 朴貞淑
五錢 同 兪明淑
拾錢 一學年三組 李文榮
拾錢 同 金慶煥
拾錢 同 梁昌鉉
拾錢 同 黃任睦
拾錢 同 池龍人
拾錢 同 黃道淵
貳拾錢 同 方昌鈺
五錢 同 金鍾學
五錢 同 李能雨
五錢 同 韓章錫
五錢 同 白應烈
五錢 同 林天行
五錢 同 李惠奎
五拾錢 同 許容俊
拾錢 二學年一組 金萬吉
五錢 同 林永澤
拾錢 同 尹完福
五錢 同 徐興基
五錢 同 劉順鳳
五錢 同 金先鎭
五錢 同 吳世完
五錢 同 李相烈
拾錢 同 金正淑
拾錢 同 金得順
拾錢 同 鄭福童
拾錢 同 李長卿
拾錢 同 李順分
五錢 同 柳承業
五錢 同 慶□□
五錢 同 崔慶姬
五錢 同 金順伊
五錢 同 朴妙順
五錢 同 朴明淑
五錢 同 金永順
五錢 同 孫淑子
五錢 同 朴貞玉
五錢 同 孫順熙
五錢 同 李漢淑
五錢 同 辛和春
五錢 同 朴英卿
五錢 同 金慶南
五錢 同 金大能
五錢 同 徐永基
五錢 同 朴明煥
五錢 同 李淳根
五錢 同 申昆根
五錢 同 朴基善
五錢 同 洪俊燮
五錢 同 河春植
五錢 同 李熙榮
五錢 同 朴英秀
拾錢 四學年 韓炳濟
拾錢 同 陳錫昌
拾錢 同 金學泰
拾錢 同 尹鍾憲
五錢 同 朴秀陽
五錢 同 朱完燮
五錢 同 吳斗植
五錢 同 林昌順
五錢 同 林興女
五錢 同 金恩順
五錢 同 金栢順
五錢 同 張仁淑
五錢 同 文明俊
五錢 同 梁完姬
五錢 同 宋舜昌
五錢 同 朴順伊
五錢 同 金福興
五錢 同 李在仁
五錢 同 金今順

◎金四圓六拾貳錢也 大阪市東成區南生野町五丁目七八坂東相助會本部取扱

(內譯)

壹圓 大阪市東成區南生野町 金泰浩
五拾錢 同 崔昌植
五拾錢 同 金鎭植
五拾錢 同 李錫權
五拾錢 同 辛順明
五拾錢 同 梁世連
五拾錢 同 金鵬集
五拾錢 同 具學鳳
五拾錢 同 文福述
五拾錢 同 張德述
五拾錢 同 具奉好
五拾錢 同 孫桂榮
五拾錢 同 金丁龍
五拾錢 同 林敬鶴
五拾錢 同 朴祚
四拾錢 同 鄭昌淳
參拾錢 同 崔升昊
參拾錢 同 朴性伊
參拾錢 同 康寬樞
參拾錢 同 金月奉
參拾錢 同 李壽俊
參拾錢 同 車性煥
參拾錢 同 崔時俊
參拾錢 同 朴宗坤
貳拾錢 同 文千伊
貳拾錢 同 崔福元
貳拾錢 同 金鳳敎
貳拾錢 同 尹八均
貳拾錢 同 尹乙性
貳拾錢 同 金判釗
貳拾錢 同 崔点俊
貳拾錢 同 崔順龍

◎金拾壹圓貳錢 北鎭支局取扱

水害救濟同情會收入金參拾貳圓九拾八錢也義備經費貳拾壹圓九拾六錢除實入金拾壹圓貳錢也

(內譯)

三圓 平山邑內 消防組
三圓 同 郡廳職員一同
壹圓五拾錢 同 泰昌釀酒組合
壹圓 同 普通學校職員一同
壹圓 同 金融組合職員一同
五拾錢 同 地方法院
五拾錢 同 郵便所長
壹圓 同 寶合會社
壹圓 同 金基斗
參拾錢 同 康麟球
參拾錢 同 金鳳鶴商店
貳拾錢 同 康俊官
貳拾錢 同 李允燮
壹圓 同 李宗燮
壹圓 同 金泳義
壹圓 同 李京壽
壹圓 同 胡本天商店
壹圓 同 康承泰
壹圓 同 劉來庚
壹圓 同 白龍彬
五拾錢 同 方孝練
五拾錢 同 白昌成自轉車店
五拾錢 同 金鳳俊
五拾錢 同 崔日燮
五拾錢 同 白樂汶
五拾錢 同 黃錦律
五拾錢 同 劉麟慶
五拾錢 同 康義泳商店
五拾錢 同 李秉珏
五拾錢 同 李秉璉
五拾錢 同 李文燮
五拾錢 同 河呈昊
五拾錢 同 李文善商店
五拾錢 同 康夏斌
四拾錢 同 金鳳熹
五拾錢 同 李寅杓
五拾錢 同 寶票分
四拾錢 同 金正□
五拾錢 同 金順華
參拾錢 同 李明烈
拾錢 同 金光龍
參拾錢 同 李國棒兒
參拾錢 同 康□翊
拾錢 同 梁致伯
參拾錢 同 李東根
拾錢 同 李花伯
參拾錢 同 李炳喬
貳拾錢 同 李載企
參拾錢 同 李永順
參拾錢 同 張炳森
參拾錢 同 金成龍
貳拾錢 同 白炳淡
參拾錢 同 金麗實
貳拾錢 同 金永泰
貳拾錢 同 白龍淵
貳拾錢 同 高文學
拾錢 同 文基玉
拾錢 同 高哲洙
參拾錢 同 趙光介
五拾錢 同 金重貫
拾錢 同 崔允一兒

◎金八圓也 延禧普明學校取扱

(內譯)

四圓 京城延禧普明學校職員一同
四圓 同生徒一同

◎金六拾錢也 沃溝郡羅浦面西浦里上帝敎支部宗務正取扱

(內譯)

拾錢 沃溝郡大野面竹山里 姜璧義
五錢 同 全用甫
五錢 同 金尙龍
拾錢 同 高殷煥
拾錢 沃溝郡□□面月下里 郭俊植
拾錢 同羅浦面西浦里 趙學順
五錢 同 片錫宗
五錢 同 俞萬泰

五錢 同 朴瑛玉
五錢 同 李貞順
五錢 同 具芝英
五錢 同 金禹鐸
五錢 同 申興俊
五錢 同 金基善
拾錢 夜學部 徐仁錫
拾錢 同 沈龍順
拾錢 同 申花淑
拾錢 同 崔壽福
拾錢 同 康順吉
五錢 同 沈鳳順
貳拾錢 同 李鍾順
五錢 同 石福順
五錢 同 池龍出
貳拾錢 同 崔成泰
貳拾錢 同 朴相根
拾五錢 同 尹相植
拾五錢 同 李東根
拾錢 同 韓禹梓
拾錢 同 黃東浩
拾錢 同 崔順福
拾錢 同 吳文吉
拾錢 同 申吉用
拾錢 同 辛京信
拾錢 同 盧相崙
拾錢 同 金奉浩
拾錢 同 全英萊
拾錢 同 金國善
拾錢 同 李冠□
拾錢 同 徐萬洪
拾錢 同 金鳳順
拾錢 同 崔慶元
貳拾錢 同 金海洙

◎小計 六拾四圓六拾四錢也

◎累計 貳萬九千七百五拾六圓參拾五錢也

三曲線 (2)

張赫宙 作
李馬銅 畵

전화 二

「누구시오」

상수는 간얇은 여자의음성이들리려나 하고 수화기를 귀에다 대엇다.

「네?」

그러나 그것은 여자의 소리가 아니엇으므로 그는 실망과 노여움으로 이마를 찡그리고 소리를 거츨게 하엿다.

「네? 누구요.」

그는 또 한번 소리를 질럿다. 저쪽 음성이 왕왕하엿스이지 잘 알어 들을수가 없엇기때문이다.

「아— 네。윤창신대입니까」

그는 조금 후회하엿다.

「아, 나 누구라구。실례햇구료 그래 언제 귀국하엿서요.」

소리를 부드럽게하고 물엇다. 그에게 전화를 건이는 그와 다소치분이잇는 동경유학생 이엇다 또시인(詩人)으로 유명한 이엇다

「그동안 별고 없엇습니까.」

저쪽에서 말하엿다.

「네, 장 한모양이지오。마는 창진은 그동안 다른 연고 없엇소 혹 지상(紙上)으로 조흔 시를 애독두 허고, 소식은 듯습니다.」

「아이 천만에.」

윤창시(尹昌鎬)의 소리는 환하니 무병해왓다.

「곧 가서 뵙는다 하면서 못갓습니다。오늘쯤 가다는것이 또이러케 전화로 실례하게 되엇서요」

「아, 천만에요。고맙습니다. 그까지……」

「그런데요, 돌연히 전화로 말슴이기는 미안합니다 만요.」

「네.」

「다름아니라 그…글세…」

상시이는 무엇을 생각는것 갈앗다.

「말슴하시죠」

「글세 전화로 말슴 들이기 퍽 거북 하데요」

「뭐 상관 잇습니까。말슴하시지오」

「그럼 여쭈어 볼까요。현데…」

창시이는 잠시 묵묵히 잇다가

「돈을 좀 꾸어 달라는 것이데요」

「네—」

상수의 얼골은 돌연히 불쾌해지엇다。그는 또 소리를 낫추고 아까 전화 밧을때 그가 기대하는 여자이가 하는것이 창시이엇든 그 불쾌가 무럭무럭 가심속에서 피어 올러서

「글세 빌려 들이어도 조치오」 하고 십다는 마음이 노곱하나 하는 어조로 말하엿다.

「二十원이면 됨니다 만요…」

「二十원?」

「네—」

「아이고 그러케는 없는걸요」

「네。그럼 그만 둡시다。나 종 만나러가겟습니다。자 실례」

창지이는 전화를 툭 끈허엇다.

상수는 二十원쯤 빌려 주면서 하고 그러케 거절한것은 뉘우치나 어머니가 전화의 리용을 금하엿스나 창신이는 나오지 아니하엿다。창신이는 다른곳으로 간 모양이엇다.

상수는 여자를 기대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그러케 하것이나

「언제 맛다고 돈은 빌려 주어」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현데 벌서 네시인데 어째 여태까지 아모 소식이 없나」

전방안을 이리 저리 갓다 왓다 하엿다.

그는 그여자가 만나자는것이 오후네시라고 하잔엇든가? 오후네시가 아니든가? 하고 여자와의 대화를 생각해 보앗다.

「네시쯤 오시겟서요」

「네시가 조켓죠。산보는 해가 넘어간때가 조하요.」

상수는 네시다 하고 시계를 또 처다 보앗다。네시 십오분 이엇다.

十五분쯤 늦엇자 어때。그는 마음을 푸근히 먹으려고 하엿다.

十분。

그때 전화가 왓다。상수는 집원 보다 먼저 뛰어 갓다.

그러나 그것은 숨뎁의 주문이엇다。그러기를 세번.

네번째 전화가 왓슬때는 그는 전화를 밧지 안햇다.

그러나,

「어데헌데 온것입니다。」 하고, 집원은 수화기를 들고 그를 처다 보앗다.

骨髓호르몬鐵製劑

增血肥肉強骨

네오부루도-제錠

秋凉에
健康充實은
네오부루도-제錠으로
그理由는이러하다

네오부루도-제錠의 重要成分—骨髓호르몬은 生體骨髓에對하야顯著하고도强力한直接間接的血液再生促進作用을呈하는外에貴重榮養素인含燐蛋白質（누클레오푸로테인、레시트푸로테인）을含有하엿다。此는生體細胞核及腦神經組織의必須成分인故로네오부루도-제錠을攝取하면、生體全般의細胞는勿論內臟諸器管特히、腦、神經系、肝臟、性器等의病弱衰退한細胞가根本的으로復活하야持續的으로機能이活潑하되는結果全身의新陳代謝는旺盛히改善되는同時에骨質成分（칼슘及燐）에依하야、生體細胞는더욱好調를呈하야强健히되고新陳代謝는一層旺盛히되는까닭에、老衰를豫防하고、虛弱體質及病者는速히健康을恢復하며、一層의生氣潑溂한精力을增進하게되다。

主効

體質虛弱症、榮養不良、腺病、精力減退、貧血、神經衰弱症、食慾不振、消化不良、佝僂病、骨軟化症、產前產後衰弱、婦人血道、히스테리ー

「生命의源泉」

藥價低廉

三十日量 一圓八十錠 (三百六十錠入)

用量 大人一日四錠

百八十錠入 一圓
千錠入 四圓五十錢
五千錠入 二十一圓

京城府本町 株式會社 藤澤友吉京城支店
本店 大阪

KNB—43